



즉시 배포용: 2015년 12월 2일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현재 뉴욕주에서 **100여** 농장 양조업체가 조업 중임을 발표

*작년에 43개소의 신규 양조장이 개업*

*수수료 인하로 양조업체들이 약 100만 달러 절약*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작년에 뉴욕주에서 43개소의 신규 농장 양조업체가 개업하여 주의 조업 농장 양조업체 총 수가 106개소가 되었음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뉴욕주 재배 재료를 사용하는 수제 양조장을 위한 신종 면허를 창설하고 소규모 양조장을 위해 브랜드 라벨 등록 면제를 포함시킨 주지사의 농장 양조법으로 양조업체들이 현재까지 약 100만 달러를 절약하였습니다.

“뉴욕주의 번영하는 수제 음료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주의 구석구석마다 지역 경제를 강화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행정부는 번잡한 행정 절차를 철폐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이러한 농장 양조업체들이 팽창하면서 주의 농업과 관광 산업을 강화하도록 도왔습니다.”

2014년 11월 이후 뉴욕주에서 설립된 신규 농장 양조업체들 리스트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106개소의 농장 양조업체 이외에 뉴욕주에는 133개소의 영세 양조업체(2011년의 단 40개에서 증가)와 39개소의 식당 양조업체(2011년의 단 10개에서 증가)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8개소의 농장 양조업체가 현장의 지점을 열었습니다. 이것도 주지사의 법에 의거 승인된 관행입니다.

4월에 **Cuomo** 지사는 뉴욕주의 성장하는 수제 맥주 산업이 6,552개의 직접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의 또 다른 4,814개의 일자리를 뒷받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수제 맥주 산업은 또한 뉴욕주 내에 직접 및 간접 세입으로 29억 달러 이상을 책임지고 직간접 임금으로 5억 5400만 달러를 담당하여 약 35억 달러의 총 경제 효과를 차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제 맥주 산업에 관련된 관광업에 의해 3,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연 임금이 7700만 달러가 됩니다.

수제 맥주 산업의 이 급속 성장은 Cuomo 지사가 선도한 다음과 같은 최근에 시행된 여러 규제 및 입법 개혁에 기인합니다:

- **수수료 철폐:** 주지사의 농장양조법에는 2013년 1월 1일부로 작은 배치의 맥주에는 브랜드 라벨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 주류청은 6,659건의 무수수료 브랜드 라벨을 승인하여 수제 양조업체들이 998,850 달러를 절약하였습니다. 주지사의 농장양조법은 또한 소규모 양조업체를 위한 세금 혜택을 보호하였습니다. 6000만 갤런 이하의 맥주를 생산하는 양조업체는 뉴욕주 개인 소득세 및 기업세에 적용되는 환불가능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세금 감면:** 2015-16 뉴욕주 예산에는 뉴욕주 양조업체가 시행하는 시음을 위한 세금 감면을 확대하려는 Cuomo 지사의 제안이 포함되어 수 백개의 수제 업체들을 위해 비용을 낮춤으로써 그들이 제품을 더 잘 마케팅하고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금 감면은 2015년 6월 1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 **생산 레벨 인상:** 주지사의 2014 수제양조법은 모든 수제 양조장이 시음 행사를 실시하고 별도 면허 없이도 그들이 제조한 음료를 병 또는 잔 단위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외에 농장 양조업체 및 영세 양조업체의 년 생산 한도를 60,000에서 75,000 배럴로 인상하였습니다.
- **수제 음료 홍보 및 마케팅:** 제3차 포도주, 맥주, 증류주, 과실주 서밋에서 Cuomo 지사는 2014년에 처음 출범한 마케팅 및 홍보 이니셔티브를 갱신하기 위한 500만 달러 투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정부는 관광 진흥 및 표적 광고 캠페인을 통해 이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직접 지출에 200만 달러를 투입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300만 달러 교부금 프로그램이 뉴욕주의 포도주, 맥주, 증류주, 과실주의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한 이 산업의 분담금의 20%를 매칭할 것입니다. 포도주 및 맥주 산업이 수출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기 위한 최대 50,000 달러의 무이자 융자를 위해 주지사의 Global NY Fund를 통해 다른 500만 달러가 유보됩니다.
- **연구 지원:** 주정부는 Geneva 소재 New York State Food Venture Center의 Winery and Enology Lab 및 New York State Brewery & Analytics Lab을 개조할 것입니다. 이전 예산에 반영된 340만 달러 이외에 Food Venture Center에 350만 달러가 투입되었습니다.

주 주류청 의장 Vincent Bradle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두 가지 농장 기반 면허 창설, 마케팅 인센티브 제공 및 규제 간소화를 통한 뉴욕주 수제 양조장을 위한 Cuomo 지사의 지원은 주 전역에 양조업체 붐을 일으켰습니다. 3년 미만에 백여개의 기업이 신설된 농장양조 면허를 활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와 현지 재배 농산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였습니다.”

주 농업부 장관 Richard A. Bal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음료 산업을

성장시키는 주지사의 리더십은 우리 농장 양조업체들을 위한 놀라운 소득과 현지 재배 농산품의 수요 증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수제 양조업체는 우리 주의 번영하는 농경제에 중요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현지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독특한 음료를 낳고 우리 주의 농민 및 호프 재배자들을 뒷받침합니다.”

**Empire State Development 총재, CEO & 커미셔너 Howard Zemsky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해 농장 양조업체들의 커다란 성장은 뉴욕주를 위한 희소식입니다. 우리는 뉴욕주 재배 재료를 활용한 수제 음료 생산의 부흥에 참여하여 흥분됩니다. 주 기관들은 주 전역에서 창업 또는 확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기업들을 위해 비용을 삭감하려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Empire Brewing Company 사장 & NYS 양조협회 회장 David Katleski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Cuomo 지사와 그의 행정부는 견실한 이니셔티브를 시행함으로써 NYS 수제 양조업의 변화하는 니즈에 적응하여 우리 산업을 위한 인상적인 성장을 낳았습니다. 농장양조법의 제정 이래 개업한 농장 양조업체의 수는 그의 이니셔티브 중 단 하나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분명히 증거합니다.”

**뉴욕주 양조협회 전무 Paul Leone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농장 양조 면허가 창설되었을 때 뉴욕주에서 많은 새 양조업체들이 현지 재료 구매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주 전역의 우리 산업을 뒷받침할 새 사업들이 창설되었으면 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희망이었습니다. 2013년 이래 우리는 이제 9개의 옻기름 제조소, 매년 식재되는 수 천 에이커의 맥주보리 및 호프 산업으로 엄청난 컴백을 이루어 우리 농장 양조업체뿐만 아니라 뉴욕주의 모든 양조업체를 뒷받침합니다. Cuomo 지사의 지속적 지원이 없었다면 이 중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심으로 그에게 감사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